한국전력공사 공인협의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목욕탕,숙박업소,식당,병원,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지방경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2월 30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04 호

비극의 교훈 검은 화염에 휩싸인 것은 총무원 청사뿐이 아니다. 한국불교의 자화상이다. 이제 이 부끄러운 얼굴을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갈 빛나는 얼굴을 만들어 내는 일에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 오늘의 비극은 내일의 희망을 심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 고영배 기자

"총무원장 선거로 종단안정"

청사 되찾은 총무원 '범불교도 참회법회' 등 계획

23일 총무원청사를 반환 받은 조계종 총무원이 종단 안정의 길 닦기에 분주하다.

청사반환과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를 종단사태 해결의 실마리로 여겨온 총무원은 29일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는데 업무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종단사태로 돌출된 여러 현안들을 중앙종회와 함께 풀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시급한 현안으로는 각종 선거관련 종헌 종법개정과 종단 구조의 개편등.

총무원은 11월 11일 승려대회 이후 심하게 훼손된 청사 건물의 완전 복구에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40일 이상 공백 상태로 지속된 업무를 복구하고 각 교구본사와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무엇보다 총무원은 이번 사태로 실추된 불교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와관련 총무원은 26일로 계획됐던 범불교도대회를 일단 연기했다가 시기를 봐서 범불교도 참회법회 형식으로 대규모 법회를 봉행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일 정오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은 종회의장 법등스님, 박광서, 김재일 범불교연대회의 공동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종단 안정의 설계도를 내 놓았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법스님은 사태의 수습과 총무행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종단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특히 도법스님은 "원로스님과 중진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화합으로 종단의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정화회의측 스님들의 징계문제와 관련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입장으로 참회한다면 관용적이고 화합적인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 말해 이번 사태로 인한 무더기 징계사태를 최대한 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사법부 차원에서 처벌대상으로 지목되는 스님들에 대한 구제는 총무원으로서도 함들 것이란게 주변의 관측이다.

11월 30일 승려대회에서 불신임을 당한 종정 월하스님의 후임 종정 추대문제도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종단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새집행부 출범 이후에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만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임연태 기자
(ytim@buddhapia.com)

◇23일 총무원청사를 반환 받은 직후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가운데)이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 안정을 위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산스님

29일 조계사서 총무원장 선거
고산-지선스님 '출마'

지선스님

29일로 예정된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쌍계사주지 고산스님(64)과 백양사주지 지선스님이 입후보 했다. 지선스님(52)은 21일 오전 9시경에 등록했으며 고산스님은 22일 등록마감 직전인 오후 4시 30분경에 등록했다. 따라서 지선스님은 기호1번 고산스님은 기호2번으로 입후보 했다.

고산스님은 1945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범어사 해인사등 선원에서 18하안거를 성만했으며 범어사, 청암사에서 강사를 맡기도 했다. 중앙종회의원과 조계종 초대 호계원장을 역임했으며 조계사 은해사 등 주지를 거쳐 동국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지선스님은 1961년 백양사에서 석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운문선원에서 3하안거를 성만했다. 중앙교육원 1기 졸업생인 스님은 종정 사서실장과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6대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92년부터는 실천불교승가회 의장을 맡으며 불교사회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했다.

한편 후보들은 후보등록에서 선거공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선거기간이 짧고 종단 상황을 감안해 대오적인 선거운동을 자제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결국 총무원 청사에 공권력

23일 새벽 경찰투입…정화측 스님들 강제연행 해산

11월 11일 이후 43일간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점거해 온 정화개혁회의측에 대한 법원의 퇴거 강제집행이 23일 법원 집행관과 경찰병력에 의해 이뤄져 총무원 집행부가 청사를 다시 반환 받았다.

이날 청사퇴거 강제집행은 경찰이 50개중대 6천여명의 병력과 불도저, 물대포차, 포크레인 등 장비를 새벽 4시 30분경 조계사에 투입하면서 시작됐다. 정화회의측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경찰은 일단 물러 났다가 5시 50분 집행관들과 다시 경내에 진입해 정화회의측과 극적인 공방을 벌이다 오전 10시 15분경 저항하던 정화회의측 스님 등 77명이 연행됨으로써 4시간 30분만에 작전이 종료됐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시내 7개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를 벌인후 28명의 폭력혐의자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퇴거집행 과정에서 경찰 15명과 스님 2명 신도 2명등 1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총무원 청사 옥상으로 고가사다리를 이용해 투입되다 15미터 아래 땅으로 떨어진 특공대 소속 경찰 5명중 2명은 중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5시 50분경 법원 집행관및 용역자등 2백여명과 경찰병력이 다시 조계사 경내로 진입하자 정화회의측 스님들은 청사 각층 난간에서 화염병과 유리병, 석유통, 가스통을 던지며 강력 저항했다. 일부 스님들은 난간에 선 채 분신과 투신을 하겠다며 위협했으며, 스님 3명은 배에 흉기로 자해를 하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경찰과 집행관의 청사진입이 몇차례 진행되며 공방을 벌이던 중 정화회의측 스님들은 오전 9시 30분경 청사 1층에 불을 지르며 저항했다. 순식간에 검은 화염에 휩싸인 청사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것은 9시 50분경. 5층 옥상을 점거한 특공대는 차례로 저항하는 스님들을 제압했으며 이와 동시에 경찰기동대 병력 2백여명은 1층을 통해 청사를 점거했다.

4시간여동안의 공방끝에 청사를 장악한 경찰은 건물을 수색한 후 법원 집행관은 총무원측 합동 조사 이후 청사 밖으로 철수했다. 강석영 집행관도 총무원측과의 건물 수색이후 "12월 11일 서울 지방법원 51부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경찰력의 도움으로 완결됐다"고 밝힌 뒤 청사를 총무원측에 인계했다.

경찰과 정화회의측이 대치 된 상황에서 법원측은 방송차량을 통해 "민주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기 바란다"고 몇차례 권고방송을 했다. 정화회의측은 "종정스님의 교시와 원로스님들의 뜻을 따라 정화불사를 진행중"이라며 "종교 내부문제에 공권력이 간섭하지 말라"고 맞섰다. 특별취재팀

관련기사 2 · 3 · 23면

"정당한 법집행 환영"

교계단체들 성명 잇달아

23일 법원과 경찰에 의한 정화개혁회의측의 총무원청사 강제퇴거를 환영하는 성명서들이 잇달아 발표됐다.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도연대회의(공동대표 도법 등6명)와 조계종 포교사단은 "공권력 투입은 사회악 일소차원으로 이뤄진 정당하고도 불가피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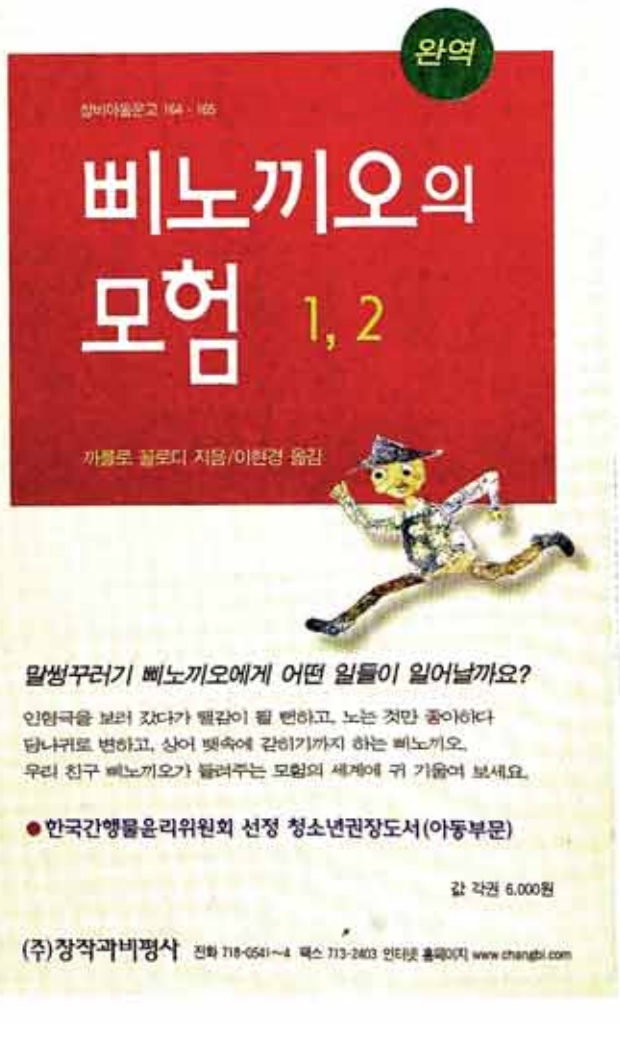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등 3개교구본사 주지스님과 대중들도 공동 성명을 발표, "불법폭력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란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등3명)와 전국선원수좌회도 23일 논평을 냈으며 부산불교 20개 신도단체와 통도사말사 및 신도대중 명의의 성명서도 발표됐다. 임연태 기자

화합승가 축구

종단협 성명 발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들은 24일 간담회를 갖고 '조계종단의 화합승가 구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단협은 성명을 통해 "조계종 사태가 공권력에 의해 해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육화정신으로 종단의 대화합을 이루는 지혜를 모아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종단협은 또 "이후로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고 불교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제종단들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태고종 · 천태종 · 진각종 · 관음종 등 23개 종단 대표가 참석했다. 임연태 기자

98년 빛을 본 불교문화재 11면
베스트불서 200자 명사 독후감 8면
'작은 실천 큰 기쁨' 1년 반응 22면